2026년 11월 기준 · 50 MISTAKES NEW DOG OWNERS MAKE

초보 견주가 모르고 하는 실수 50

배변·산책·사료·혼자 두기, 강아지보다 내가 먼저 바꿀 것들



동물보호법 수의 단체
공식 자료 19종 그대로 확인

혼내기 전에, 내 쪽의 실수 하나부터

1분 점검 · 50가지 전체 점검표 · 4주 계획 · 기록표 등 부록 10가지

블록뮤즈 서재 엮음

블록뮤즈

차례

이 책을 읽는 법 3

1장 배변 — 혼내기 전에 시간표부터 5

2장 밥과 간식 — 그릇보다 저울 15

3장 산책 — 줄 한 줄에 담긴 법과 예절 24

4장 혼자 두기 — 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그 전부터 33

5장 훈련과 말버릇 — 「안 돼」보다 「이렇게 해」 41

6장 건강과 병원 — 괜찮아 보여도 48

7장 계절과 집 안 — 더위·추위·창문 56

8장 무엇부터 고칠까 — 우선순위와 4주 계획 61

부록 1 실수 50 전체 점검표 65

부록 2 배변 기록표(사흘치) 68

부록 3 먹이·체중 기록표 70

부록 4 먹으면 안 되는 것과 그때 할 일 71

부록 5 건강 달력 73

부록 6 혼자 두기 기록표 75

부록 7 「원래 그래」 변화 기록 — 병원에 들고 갈 메모 76

부록 8 산책 기록표 77

부록 9 자주 묻는 질문 78

부록 10 도움 받을 곳 80

덧붙임 첫날 준비물 — 고르는 기준과 아끼는 방법 81

참고 자료 83

이 책을 읽는 법

「우리 애는 왜 이럴까?」 하고 검색창을 열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물어봐 주세요. 혹시 내가 모르고 한 일은 없었을까?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고민이 생깁니다. 바닥에 자꾸 쉬를 하고, 산책만 나가면 줄을 끌고, 혼자 두면 짖고, 살이 찌고, 이를 닦으려 하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고민들의 상당수는 강아지가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보호자가 좋은 뜻으로 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혼내면 알아들을 줄 알았고, 사료 봉투에 적힌 대로 줬고, 「잠깐인데 뭐」 하고 차에 두고 내렸습니다.

이 고민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식조사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의 22.1%가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 1위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28.8%), 2위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6.0%)이었습니다[2]. 행동과 지출 — 이 책의 실수 쉰 가지는 거의 모두 이 두 갈래 중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실수를 줄이는 일은 끝까지 함께 사는 길을 넓히는 일입니다.

이 책은 처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모르고 하기 쉬운 실수 50가지를 모았습니다. 배변·밥·산책·혼자 두기·훈련·건강·계절, 일곱 갈래입니다. 실수마다 네 칸으로 읽습니다.

- 흔한 장면 — 많은 집에서 실제로 하는 행동 한 줄
- 왜 문제일까 — 공식 자료가 말하는 이유(숫자 옆 번호가 출처)
- 이렇게 바꾸세요 —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순서
- 한 줄 점검 — 내가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

이 책의 한 문장

강아지의 「문제 행동」 중 많은 것은 보호자의 습관이 먼저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혼내기 전에, 내 쪽에서 바꿀 것부터 찾아보세요.

책에 적은 숫자·법 조항·건강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동물보호법 원문, 서울특별시 안내, 그리고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미국동물병원협회(AAHA)·미국수의동물행동학회(AVSAB)·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ASPCA) 같은 수의·동물복지 단체의 공식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1][3][8][10]. 숫자 옆 [1], [2] 같은 번호는 책 끝 「참고 자료」의 번호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았고, 근거 없이 이 책이 권하는 방법은 「이 책의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마다 나오는 「장면」과 실수마다 적은 「흔한 장면」은 가상의 장면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서 흔히 생기는 일을 여러 갈래로 섞어 만든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가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책 속 사진도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그림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책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법과 지침은 바뀔 수 있습니다. 등록·외출 규칙처럼 법이 정한 일은 시·군·구청이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3].

이 책은 수의사의 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료 양·접종·약은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상담하세요.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었거나, 심하게 헐떡이고 비틀거리면 책을 덮고 바로 동물병원에 연락하세요[9][15].

먼저 1분 점검 — 우리 집은 몇 개일까

아래 열 가지 중 지난 한 주 동안 한 번이라도 한 것에 표시해 보세요. 각각 이 책의 어느 실수와 이어지는지 번호를 적어 두었습니다.

- ○ 바닥에 실수한 자리를 보여 주며 「여기 왜 쌌어!」 하고 혼냈다 (실수 01)
- ○ 사료 봉투에 적힌 양을 계량컵으로 떠서 그대로 줬다 (실수 08·09)
- ○ 훈련할 때 준 간식은 하루 사료 양과 따로 계산했다 (실수 10)
- ○ 산책 중 배설물을 「풀밭이니까」 그냥 두고 왔다 (실수 19)
- ○ 줄을 당기면 당기는 대로 따라가 줬다 (실수 21)
- ○ 외출할 때 「엄마 금방 올게」 하고 길게 인사했다 (실수 27)
- ○ 돌아와서 어질러진 집을 보고 혼냈다 (실수 29)

- ◯ 심장사상충 약을 「모기 철에만」 먹였다 (실수 42)
- ◯ 강아지 이를 한 번도 닦지 않았거나, 사람 치약을 썼다 (실수 43·44)
- ◯ 「잠깐인데」 하고 강아지를 차에 두고 내린 적이 있다 (실수 47)

셋 이상이라면 이 책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도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마흔 가지가 남아 있으니까요. 실수 50가지 전체 점검표는 부록 1에 있습니다.

● 이 책의 지도

장	갈래	실수 번호
1장	배변 — 혼내기 전에 시간표부터	01~07
2장	밥과 간식 — 그릇보다 저울	08~16
3장	산책 — 줄 한 줄에 담긴 법과 예절	17~24
4장	혼자 두기 — 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그 전부터	25~32
5장	훈련과 말버릇 — 「안 돼」보다 「이렇게 해」	33~38
6장	건강과 병원 — 괜찮아 보여도	39~46
7장	계절과 집 안 — 더위·추위·창문	47~50
8장	무엇부터 고칠까 — 우선순위와 4주 계획	—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가장 골치 아픈 갈래부터 펴세요. 다만 3장 산책의 법 이야기와 7장 계절 이야기는 강아지의 안전과 과태료에 바로 이어지니, 어느 장부터 읽든 이 두 장은 꼭 읽어 주세요.

이 장의 출처

[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2026. 2. 1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4753/download.do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2023. 2. 3.(조간). https://www.mafra.go.kr/bbs/mafra/68/565282/artclView.do

[3]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법률 제22119호, 2026. 10. 27. 일부개정) 제10조·제15조·제16조·제101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 11. 24. 확인)

[8] American Animal Hospital Association(AAHA), 「2021 AAHA Nutrition and Weight Management Guidelines for Dogs and Cats」 — Prevention of Obesity, 2021. 6. 22. https://www.aaha.org/resources/2021-aaha-nutrition-and-weight-management-guidelines/prevention-of-obesity/ (2026. 11. 24. 확인)

[9] ASPCA Animal Poison Control, 「People Foods to Avoid Feeding Your Pets」. https://www.aspca.org/pet-care/animal-poison-control/people-foods-avoid-feeding-your-pets (2026. 11. 24. 확인)

[10] American Veterinary Society of Animal Behavior(AVSAB), 「Position Statement on Humane Dog Training」, 2021. https://avsab.org/wp-content/uploads/2021/08/AVSAB-Humane-Dog-Training-Position-Statement-2021.pdf

[15] 서울특별시 환경 분야 소식, 「폭염 속 반려동물 안전, 이렇게 지켜주세요」.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70275 (2026. 11. 24. 확인)

1장

배변 — 혼내기 전에 시간표부터

배변 실수는 초보 견주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입니다. 그런데 바닥의 얼룩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그때 보호자가 보인 반응입니다. 이 장은 배변에서 흔한 실수 일곱 가지를 다룹니다. 이 장을 읽고 나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이 장을 읽고 나면

- ✓ 실수를 혼내지 않고, 성공을 늘리는 하루 순서를 짠다
- ✓ 강아지의 월령에 맞춰 화장실 시간 간격을 정한다
- ✓ 갑자기 실수가 늘었을 때 훈련 문제와 몸의 문제를 가른다

장면 예시

가상의 장면 — 거실 러그 위의 노란 얼룩

퇴근하고 문을 연 그는 러그 위의 노란 얼룩부터 봤습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다 그의 표정을 보고 멈칫합니다. 그는 강아지를 안아 얼룩 앞에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 아니지? 여기 아니라고 했지?」

다음 날, 얼룩은 소파 뒤에서 발견됐습니다. 강아지는 이제 그가 보는 앞에서는 절대 쉬를 하지 않습니다.



배변판 옆에서 기다리는 강아지 — 성공을 늘리는 쪽이 실수를 줄입니다

실수 01 실수한 자리로 데려가 혼낸다

흔한 장면 얼룩 앞에 강아지를 데려가 코를 대게 하거나 「여기 아니야!」 하고 혼낸다.

왜 문제일까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옛 미국휴메인협회)의 배변 훈련 안내는 혼내거나 코를 문지르는 일은 강아지를 겁먹게 만들 뿐이고 배변

훈련을 더디게 한다고 적었습니다[6]. 강아지는 「바닥에 쌌다」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앞에서 싸면 무서운 일이 생긴다」를 배웁니다. 장면 속 강아지가 소파 뒤로 숨어 들어간 까닭입니다.

해결

이렇게 바꾸세요

1. 이미 지난 실수는 말없이 치웁니다. 강아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2. 하는 도중에 봤다면 놀라게 하지 말고 조용히 안아 배변 장소로 옮깁니다.
3. 거기서 마저 하면 그 자리에서 칭찬합니다(실수 04).

한 줄 점검 지난 일주일, 얼룩을 보고 강아지 이름을 부른 적이 있나요?

실수 02 「몇 시간쯤은 참겠지」 하고 오래 둔다

흔한 장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사이 여덟 시간은 강아지가 알아서 참기를 바란다.

왜 문제일까 같은 안내는 강아지가 대체로 월령 한 달에 한 시간쯤 소변을 참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6]. 생후 2개월이면 두 시간 남짓, 3개월이면 세 시간 남짓입니다. 그보다 오래 두면 실수는 「훈련 실패」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안내는 강아지를 적어도 두 시간마다 밖(배변 장소)으로 데려가고, 특히 잠에서 깬 뒤·놀고 난 뒤·먹고 마신 뒤에 데려가라고 권합니다[6].

해결

이렇게 바꾸세요

1. 강아지 월령을 적고, 그 숫자를 「최대 참는 시간」으로 봅니다(2개월 → 약 2시간).
2. 깬 뒤·놀이 뒤·밥 뒤 세 번은 시계와 상관없이 배변 장소로 갑니다.
3. 출근으로 그보다 길어지는 날은 중간에 들러 줄 가족이나 이웃을 미리 정합니다.

한 줄 점검 우리 강아지의 월령을 숫자로 말할 수 있나요?

● 실수 03 밥 시간이 날마다 다르다

흔한 장면 아침밥은 일어나는 대로, 저녁밥은 퇴근하는 대로. 주말은 더 들쭉날쭉하다.

왜 문제일까 강아지는 보통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배변을 합니다. 그래서 배변 훈련 안내는 날마다 같은 시간에 밥을 주면 배변 시간도 예측하기 쉬워진다고 적었습니다[6]. 밥 시간이 흔들리면 화장실 시간도 흔들리고, 보호자는 그 시간을 놓칩니다.

해결

이렇게 바꾸세요

1. 하루 밥 시간을 두세 개로 정해 냉장고에 붙입니다(주말도 같게).
2. 밥 뒤 10~20분 안에 배변 장소로 데려가 봅니다. 이 간격은 강아지마다 다르니 사흘쯤 기록해 우리 집 간격을 찾습니다(이 책의 제안).
3. 밥그릇은 다 먹으면 치웁니다. 언제든 먹을 수 있으면 배변 시간도 언제든이 됩니다(이 책의 제안).

한 줄 점검 어제와 오늘, 아침밥 시간이 30분 넘게 달랐나요?

실수 04 성공했는데 집에 들어와서야 칭찬한다

흔한 장면 산책길에서 쉬를 했다. 「잘했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했다.

왜 문제일까 칭찬은 행동 바로 뒤에 와야 그 행동과 이어집니다. 배변 훈련 안내는 강아지가 볼일을 마치면 곧바로 칭찬이나 간식으로 보상하라고 하면서, 다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6]. 너무 늦으면 무엇을 칭찬받는지 모르고, 너무 이르면 하다가 멈춥니다.

해결

이렇게 바꾸세요

1. 배변 장소에 갈 때는 간식을 주머니에 넣고 갑니다.
2. 다 끝난 그 순간, 한 박자 안에 「잘했어」와 간식을 줍니다.
3. 칭찬 말은 가족 모두 같은 한마디로 정합니다(실수 36).

한 줄 점검 배변 장소에 갈 때 간식을 들고 가나요?

실수 05 얼룩을 물티슈로 대충 닦는다

흔한 장면 겉보기엔 깨끗하다. 그런데 강아지는 자꾸 같은 자리로 간다.

왜 문제일까 개는 냄새로 화장실을 기억합니다. 배변 훈련 안내는 실수한 곳을 냄새가 남지 않게 꼼꼼히 닦으라고 했습니다. 남은 냄새가 같은 자리에 또 실수하게 만들 수 있어서입니다[6]. 반대로 그 냄새를 좋은 쪽으로 쓰는 방법도 적었습니다. 실수를 닦은 종이나 천을 원래 배변 장소에 놓아 냄새로 그 자리를 알려 주라는 것입니다[6].

해결

이렇게 바꾸세요

1. 실수한 자리는 겉만 닦지 말고 냄새까지 빼는 세제로 한 번 더 닦습니다.
2. 닦은 휴지 한 장은 버리지 말고 배변판 위에 올려 둡니다.
3. 같은 자리에 세 번 이상 실수했다면, 그 자리를 당분간 막거나 그곳에서 밥을 줘 쓰임을 바꿉니다(이 책의 제안).

한 줄 점검 같은 자리에서 두 번 이상 실수했나요?

● 실수 06 혼자 있을 때만 싼다며 「복수한다」고 생각한다

흔한 장면 「내가 나가니까 일부러 저기다 싸는 거야.」

왜 문제일까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ASPCA)는 분리불안이 있는 개의 불안 행동이 말을 안 들어서나 앙심을 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12]. 혼자 있을 때만 집 안에 실수한다면 분리불안의 신호일 수 있고, 이때 혼내면 개가 더 불안해져 문제가 훨씬 나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12]. 같은 실수라도 원인이 다르면 고치는 길도 다릅니다.

해결

이렇게 바꾸세요

1. 실수가 언제 생기는지 사흘만 적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인지, 사람이 있을 때도인지.
2. 혼자 있을 때만이라면 4장(혼자 두기)부터 읽습니다.
3. 돌아와서 발견한 얼룩은 실수 01처럼 말없이 치웁니다.

한 줄 점검 실수가 생긴 시각을 적어 본 적이 있나요?

실수 07 갑자기 실수가 늘었는데 훈련 탓만 한다

흔한 장면 잘 가리던 강아지가 요즘 다시 아무 데나 싼다.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

왜 문제일까 ASPCA는 집 안 실수가 병 때문일 수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요로 감염, 방광 결석, 당뇨, 신장병, 중성화 수술 뒤 호르몬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고, 행동을 고치기 전에 먼저 동물병원에서 몸의 문제를 확인하라고 권합니다[12]. 실금이 있는 개는 자신이 실수한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12].

해결

이렇게 바꾸세요

1. 잘 가리던 강아지가 갑자기 달라졌다면 훈련보다 병원이 먼저입니다.
2. 소변 횟수·색·양, 물 마시는 양이 달라졌는지 적어서 갑니다(부록 7).
3. 병원에서 「몸은 괜찮다」는 말을 들은 뒤에 배변 훈련을 처음 순서로 다시 합니다.

한 줄 점검 배변 습관이 바뀐 날짜를 기억하나요?

바로 쓰는 것

1장 배변 — 오늘 할 일

- ○ 강아지 월령으로 「최대 참는 시간」 적기
- ○ 밥 시간 두세 개 정해 냉장고에 붙이기
- ○ 배변 장소에 간식 주머니 걸어 두기
- ○ 냄새 빼는 세제 하나 준비하기
- ○ 실수 시각 사흘 기록 시작(부록 2)

이 장의 출처

[6] Humane World for Animals(옛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How to housetrain your dog or puppy」. https://www.humaneworld.org/en/resources/how-housetrain-your-dog-or-puppy (2026. 11. 24. 확인)

[12] ASPCA, 「Separation Anxiety」(Common Dog Behavior Issues). https://www.aspca.org/pet-care/dog-care/common-dog-behavior-issues/separation-anxiety (2026. 11. 24. 확인)